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12. 12.(화) 11:00, 배포 2023. 12. 12.(화) 06:00
(지면) 2023. 12. 13.(수) 조간

생존부터 예술의 영역까지 확장된 낙시의 역사 조망한다

- 국립해양박물관, 낙시의 역사와 관련된 국보, 현대작가 작품 등 280여 점 공개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올해 12월 13일(수)부터 내년 2월 25일(일)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서 '2023 기획전시 <피싱 : FISH 생존×예술 ING>'을 진행한다.

이번 전시는 '어로(漁撈)'라는 이름으로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낙시의 변천사를 생존부터 예술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선보인다. 전시장에는 청동기시대 국보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(故) 이견희 컬렉션의 '서암화첩'*을 비롯해 현대작가의 작품까지 총 28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.

* 조선통신사 수행화원으로 활동한 김유성의 화첩

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, 1부 '낙시, 기록된 물고기'에서는 조선시대 3종 어보인 『자산어보(茲山魚譜)』, 『우해이어보(牛海異魚譜)』, 『난호어목지(蘭湖漁牧志)』를 소개한다. 2부 '생존, 어구의 사투'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청동기시대 낙싯바늘 거푸집 등 해양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활용되었던 다양한 어구(漁具)들을 만나볼 수 있다. 3부 '예술, 물고기의 멋'에서는 예술로 승화된 낙시(어로) 관련 전시품으로 신석기시대 조개가면을 비롯해 조선인들이 사랑한 수준 높은 미술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.

마지막으로, 전시의 끝자락에서는 넥센타이어에서 제공하는 실감형 파도 영상과 현대미술작가 정희욱의 작품으로 마무리하며 인간과 해양생물의 '공존'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"인간과 바다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접점에 낙시가 있다."라며, "국립해양박물관에서 준비한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께서 낙시를 비롯해 일상 속에 녹아있는 해양문화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.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영신 (044-200-5220)
		담당자	사무관	신강섭 (044-200-5223)
담당 부서	국립해양박물관 전시기획팀	책임자	팀 장	백승주 (051-309-1851)
		담당자	학예사	이정은 (051-309-1859)

참고

기획전시 <피싱 : FISH 생존×예술 ING> 포스터

